

# 독자 토론

## 음력 법회

### 신앙적 전통 계승위해 유지돼야 찬성 생활양식 변화... 일요법회 적합 반대

80년대 이후 포교운동의 활성화는 한국불교의 저변을 넓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도시화의 확대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속에서 기다리는 소극적 포교로는 대단히 어렵다. 도시 속에서 직접 대중과 접촉하는 신앙의 정착화는 필수적이다. 도심 곳곳에 마련되는 포교원이 앞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국 불교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숙씨 (주부)

도시인의 생활에 맞는 포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포교대상이 다양화되는 즉 어린 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는 연령의 다양성이나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넓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적인 확대에 따른 양성의 변화가 도심지의 포교원에서 나타나는 데 있다. 다른 나라나 전통적인 음력기초의 법회를 양력기초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도시인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된 법회라는 명분은 좋으나 그러한 명분을 좇은 나머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음력법회를 서구종교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바꾸어 법회를 불행하려는 것은 씩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찰에서 치르는 법회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매월 8, 14, 15, 23, 29, 30일은 육재일(六齋日)이라 하여 재가자가 사탕 일을 삼가고 행위를 조심하여 선정을 닦는 정진일로 삼았다. 또한 매월 초하루와 18일, 24일, 28일은 신중기도와 지장재일, 관음재일 등으로 정해 불, 보살의 원력을 이어받는 기도를 올린다. 이러한 재일을 합

하여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결국 한달에 열흘 이상을 정진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 놓았다. 오늘날에 와서는 육재일은 생각하고 거의 초하루와 지장재일, 관음재일만을 모시고 있는데 나마도 '주일'에 맞춰 법회를 한다면 불교교유의 의미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현재도 일요일은 학생법회나 가족법회 등으로 활용하는 사찰, 포교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좋은 일이며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도시인의 생활이 일주일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음력기초의 재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만일 음력 사용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재일법회를 거르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불교명절, 세시풍속을 양력으로 바꿔 치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일 역시 생활양식에 따라 거르고 축소할 수 있는, 일의로 정해서는 안된다. 재일법회는 각 재일에 따라 여법하게 모셔지고 대신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육라립의 생활화(월요일은 보시, 화요일은 지계 등)로 일주일의 의미를 새기도록 하고 일요일은 학생, 가족법회나 구역법회를 하는 날로써 그 내용을 알차게 꾸리도록 하자.

우리의 전통은 단절 없이 계승되고 발전 시켜 그 내용을 풍부히 할 때 더욱 값지게 된다는 점을 부연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신앙 형태는 바뀌어야 할 것인가. 본지는 신앙의 바른 길잡이가 되고자 월1회 독자 여러분과 신앙의 재민향을 점검해 보는 독자토론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음력법회(재일법회)를 주제로 독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다음달 주제는 '가정불당'.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사람에서 갖는 법회는 관음재일이나 지장재일, 아미타재일 등 재일을 중심으로 한 법회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법회들은 물론 신도들에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아미타불 등 불보살의 원력을 이해서 키우고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특정 날짜를 잡은 것인 만큼 일단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65일 불보살들의 원력을 되새기며 부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 도리이겠지만 그래도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은 사찰에 가서 신앙을 키워가고 신앙태도를 스님들에게 점검받도록 하는 등 신도들을 절분위기에 가깝도록 유도한다는 재일을 마련한 근본 뜻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취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날짜를 잡되 음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모든 생활패턴이 1주일을 단위로 정해지는 직장인이나 어떤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재일을 지키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양해 환경문제나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불자로서 풀어가야 할 과제로 던져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기복신앙에만 머물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재일만이 최고처럼 지켜지는 사찰의 신도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기복신앙에 몰입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단지 재일을 음력으로 정해서 생긴 문제는 분명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재일을 양력에 따라 정하는 토요일, 일요일로 정한다고 해서 극복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재일법회가 보다 공동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야 하고 참석대상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조계종단도 개혁의 뜻을 높이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재일을 지키는 신앙형태도 이같은 흐름에 따라 보다 현실에 적응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양해 환경문제나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불자로서 풀어가야 할 과제로 던져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기복신앙에만 머물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래씨 (김동경철사)

문이다. 그러나 그저 재일만이 최고처럼 지켜지는 사찰의 신도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기복신앙에 몰입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재일법회가 보다 공동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야 하고 참석대상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 만화 법구경

이대구(對句)의 장  
마음은 모든일의 근본

이 친구들 주교장덕에서 신나게 두드리고 있겠지

모든일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일이 이루어진다

TV만 종일 보는 것도 지겹네

마누라 애들 다 나가고 없으니 더 심심하네

공대리 오늘 괴했어

공대리 이 차용증 얼마짜인지 알지?

월급때 나한테 빌린 것도 잊지 마세요

공대리님 월급.

아! 고마워

실례

아!?

내돈 빌려간 것...

제것도 부탁합니다

여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월급이 어딤!

아이고 눈앞이 캄캄하네 어찌지

나쁜 마음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때문에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수레가 마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처럼 집에있는 날 이렇게 민중거리게 아니라

나갔던 식구들이 들어오면

찰박 옷을 입 한 번 해보자

딩동

딩동

어머니! 김안이 반박 반박 하네

이름이 힘 좀 있지

얼마 저기 꽃도 있다

어머니! 꽃까지

월급날 다 되어서 당신 송편도 없을텐데

복록 달아서 샀지

당신 정말 멋쟁이 세요

앗! 애들 보는데

기다리세요 멋진 저녁상 차려 드릴 게요

너무 과용 말아요

오늘같은 날은 좀 써도 돼요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나는 모른다. 가을 향이 별나게 뚜렷한 이유를 나는 모른다. 저편 도시의 골목골목에도 어둠이 깔려 가을은 찾아 오고, 나무들은 소리없이 잎새를 떨어 붙인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다. 향은 너머의 가을과 내 가슴속의 가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로 고향

의 사뭇물같이 뚜렷한 향. 그 향이 별나게 뚜렷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모른다. 가을 향이 별나게 뚜렷한 이유를,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향 밖의 가을과 내 가슴속 가을이 같은 색의 가을임을 나는 알고 있다. 사춘기 소녀의 얼굴 같은 색, 그 빨갛고 노란색의 가을과 투명해 정한 이름의 상념들이 교차되는 짧은 순간

없는 가을의 진면목을 나는 알 것 같았다. 가을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슬픈일인지도 모르겠다. 안팎도 없고 색채도 없는 가을. 이 가을은 진정 나만의 가을이다. 나만의 가을을 간직할 것 자체는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다. 아, 나는 모른다. 가을 향이 별나게 뚜렷한 이유를, 그리고 나 혼자 알고

있는 가을이 무엇인지도 사실 나는 모른다. 다만 아늑한 것을 쫓는다. 아늑한 것은 모른다라는 것일진대 나는 감히 아늑해 하며 가을 향에서 있었다. 딱처럼 그렇게 서 있었다. 이제 가을을 달아가자. 가을의 풍요를 달고 가을의 투명함을 달자. 그리고 여름내내 통해바다를 사모해 비단빛으로 드리워진 가을 하늘을 바라보자.

홍혜정 (마포구 동교동 167-31)

## 신흥사 어린이 불교학교, 청소년 수련원 개원 20주년기념

### 상금1천만원 전국어린이, 청소년, 특수포교지도자 포·교·대·상 수상자 발표

이 땅의 불국정토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포교하고자 마련한 전국 포교 대상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특수 포교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분야별 단체와 개인적으로 올린 서류를 엄정히 심사하여 선정된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재가 불자로서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부처님 전법에 혼신을 기울이며 오늘도 포교 일선에서 묵묵히 포교하는 지도자들을 보니 우리 불교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법은 부처님께서 제일 바라는 일이고,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수상자와 시상일을 알려드리오니 꼭 참석하시어 수상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대한 불교 조계종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 시상식:
  - 일시: 불기 2538년(1994년) 10월 16일 오전11시
  - 장소: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 수상자:
  - 어린이 지도자 대 상: 조오근 최우수상: 천수은 우 수 상: 변병열 우 수 상: 박인철
  - 청소년 지도자 대 상: 정완석 최우수상: 한영욱 우 수 상: 김영희 우 수 상: 송석범
  - 특수포교지도자: 대 상: 최영철(찬불가) 대 상: 정홍진(군포교) 최우수상: 박근호(교도소) 우 수 상: 채수선(장애인) 우 수 상: 안효진(교도소) 우 수 상: 김정환(군포교) 우 수 상: 이종규(군포교)

### 상금 1천만원 신흥사 어린이, 청소년 포교 20년 교사 공로 대상 수상자 발표

어린이 청소년 포교 20년을 하루같이 혼신을 기울여온 우리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긍지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번 수련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상금 1천만원 전국 어린이, 청소년, 특수 포교 지도자 포교 대상'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동안 20여 년을 불심으로 스님을 도와서 어린이 청소년 수련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우리 신흥사 선생님들께도 격려가 되고자 '상금 1천만원 교사 공로 대상'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수상자와 시상일을 알려드리오니 꼭 참석하시어 수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 수상자:
  - 70~80년대 교사 공로대상: 이 회 숙(국민학교 현직교사로 불교학교 자원봉사) 공로금상: 김 득 영 ( ) 공로금상: 허 안 ( ) 공로금상: 김 향 순 ( )
  - 어린이, 학생회 출신 교사 공로 금상: 정지용, 한준구, 노현호 정찬용, 홍희숙, 최상규, 조성진
  - 90년대 교사 공로대상: 최 순 덕(국민학교 현직교사로 불교학교 자원봉사) 공로금상: 정 원 길 ( ) 이 슬 기 ( ) 박 성 봉 ( )
  - 단체 공로 대상: 은석국민학교(불교재단)